

생산자 중심의 사이버 서점 '북토피아' 문 열어

평가제 고수, 출판정보 공유, 독자참여 등 특징 갖춰

생산자 중심의 사이버 서점 북토피아(공동대표 조근태·이정원, www.booktopia.com)가 지난 3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70여곳의 출판사가 출자한 3억5천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출발한 북토피아는 연말까지 230여 출판사가 동참할 뜻을 밝힌 상태. 지금은 50여 출판사의 서지정보를 제공하지만 연말까지 총 60만종의 서지정보를 갖추게 된다.

실무팀을 이끄는 박정모 이사(혜지원출판사 대표)는 "북토피아는 책을 팔기 위한 서점이기 보다는 생산자가 만든 상품을 독자에게 직접 알리는 창구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생산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창구

북토피아는 기존 사이버 서점과는 차별화된 몇 가지 특징을 갖췄다. 할인율과 마일리지제 등을 적용해 할인판매를 하는 기존 사이버 서점과는 다르게 평가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평가제 고수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은 "회원사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임직원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주문받은 책은 지방마다 계약한 1~2곳의 서점이 우송하는 등 부대비용을 줄여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 박이사의 설명.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학술서·논문집 등을 분절해 파는 '디지털 북' 판매방식도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고, 절판된 책을 모아 파는 특판 코너도 만들 계획이다. 출판사가 기획·편집 중인 책을 공개해 저작권 보호와 중복출판을 막는 사이트와, 독자가 책을 직접 평가하는 장치도 개설해 출판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토피아의 서지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한글코드 2350자를 활용해 만든 코-마크(KOR-MARC)를 차용했기 때문에 색인어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토피아의 서지정보는 향후 출판계를 대표하는 도서목록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글코드 11172자 모두를 색인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부문을 맡고 있는 손형민 이사(대청미디어 대표)는 "코-마크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코-마크에서 벗어난 한글체계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색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오원진 기자

북토피아에 대한 출판계의 관심은?

— 솔직히 처음에는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출판인들이 인터넷 등 정보교류 체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식이 확 달라졌다.



북토피아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모 이사

북토피아가 기존 사이버 서점과 다른 점은?

— 북토피아는 책을 팔기 위한 서점과는 다르게 출판계에 분산된 출판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출판계의 공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북토피아를 이용할 경우 얻게 되는 장점은?

— 북토피아는 부가정보가 제대로 된 서지정

보만 1만5천종이 넘는다. 독자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외국의 사이버 서점에 대한 북토피아의 경쟁력 제고는 어떻게 갖출 생각인가?

— 아마존 등 외국 사이버 서점의 진출에 대해 많은 출판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토피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 서지정보를 갖추는 것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연계점 이익을 낼 수 있으며

주식 상장 계획은?

— 우리는 출발부터 이익을 낼 수 있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상장 문제는 추후 논의할 것이다. <오원진>